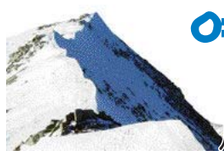

여기는 남극, 희망을 보았다

세계 최초 장애인 7대륙 최고봉 완등 동행 취재기

설릉은 끝이 없는데…
인내의 끝자락서 한발 한발

❷ 블리자드를 뚫고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는 남극 대륙 최고봉이지만 정상 높이는 5,000m에 채 못미친다. 히말라야 자이언트 봉들과 견주면 왜소해 보인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가 2,000m대에 위치해 3,000m 가까운 고도를 공략해야하는 건 8,000m급 거봉들이나 마찬가지다.

남극 탐험의 출발점인 패트리어트 힐(Patriot Hills)에서 8인승 프로펠러 경비행기인 트윈 오터(Twin Otter)를 타고 엘스워드 산군의 서쪽 브란스콤(Branscomb) 빙하 위의 베이스 캠프(2,100m)에 도착한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10분. 경비행기는 광활한 빙원과 곳곳에 보석처럼 박힌 산군 위를 1시간쯤 날더니 바퀴 대용으로 매단 스키를 이용해 얼음 평원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가파르게 치솟은 빈슨 매시프 서쪽 사면과 위성봉들, 하얀 융단처럼 부드럽게 뻗어 내린 보이스 릿지(Boyce ridge)에 둘러싸인 베이스 캠프에는 통신 및 식당용 텐트와 장비 보관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텐트 안에 매트리스를 겹으로 깔고 짐 정리와 식사, 다음날 운행 준비까지 마치니 새벽 1시. 밖은 여전히 눈이 부시다. 해가 지지 않는 하얀 밤, 백야(白夜)현상 때문이다. 침낭 속에 들어가도 쉬 잠이 오지 않는다.

여름철 이 곳의 태양은 새벽 3~4시쯤 산자락 뒤로 몸을 감추고 오전 10~11시께 빈슨의 머리 위로 다시 고개를 내민다. 얇아진 오존층 때문에 강해진 자외선과 강렬한 햇빛은 이 곳이 동토(凍土)라는 사실을 잊게 한다. 하지만 해가 사라지면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친다. 따라서 운행은 대부분 오전 10시 이후 이뤄진다.

등반 3시간만에 돌풍 만나

원정대는 당초 2,700m와 3,100m, 3,700m 지점에 3개의 전진 캠프를 설치한 뒤 정상 공격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가이드의 요청에 따라 로우 캠프(Low Camp·2,750m)와 하이 캠프(High Camp·3,700m) 두 개만 이용해야 했다. 이는 속도감 있는 등반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로우 캠프 위쪽에서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고도를 1,000m씩 끌어올려야 해 고소에 제대로 적응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원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다음날인 12월 29일 오후 1시 첫 번째 캠프로 이동을 시작했다. 로우 캠프까지는 장비와 식량을 카고백에 담아 눈썰매로 끌어 나른다. 등산로는 끝없이 완만하게 펼쳐진 아이스 플래토(Plateau) 한 가운데로 이어진다. 100~200m 간격으로 세워진 빨간 표식기를 따라 설원을 오르다보니 크러스트(눈의 표면이 바람이나 태양의 영향으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상태)가 잘 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발이 푹푹 빠진다. 스키를 타고 가는 가이드가 부럽기만 하다.

체감온도 영하 50도 '극한 추위'

3시간쯤 가니 예전에 제1캠프로 이용했다는 얼음 평원이 나온다. 순백의 얼음과 만년설은 남극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륙을 떠날 때까지 흙이라고는 밟아볼 수가 없다. 산조차도 바위 아니면 얼음이다.

유럽과 미주 출신이 대부분인 빈슨 가이드들은 안자일렌(Anseilen·로프로 서로의 몸을 묶고 등반하는 것)과 '1시간 걷고 5분 쉬기'를 고집했다. 곳곳에 크레바스가 도사리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대에 운행을 마쳐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성큼성큼 쉬지 않고 걷는 그들의 등반 스타일은 한국 원정대와는 사뭇 달랐다. 반면 우리는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가능한 한 충분히 쉬어야 했다. 서로의 페이스를 유지하려 하는 바람에 작은 갈등도 빚어졌다.

두 번째 눈언덕을 넘어서면 오른쪽 정상 능선에서 흘러내린 아이스 폴 지대를 지난다. 광활하고 텅 빈 설원 위를 걷는 인간은 너무도 작아 보인다. 그 때문일까. 하얀 산에 들면 누구나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구도자의 심정이다. 극한의 추위와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도, 가파른 벽을 넘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겹겹의 울퉁불퉁한 빙상을 올라 하이 캠프에서 내리뻗은 또 다른 아이스 폴 지대를 지나니 로우 캠프터다. 베이스 캠프를 출발한 지 6시간20분만이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1시. 하이 캠프를 향해 출발했다. 40~50도 경사의 빙설벽 구간 3km 가운데 1.2km에는 고정 로프가 설치돼 있었다. 시작은 경쾌했다. 주마링(등강기를 자일에 끼고 오르는 것)으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빙설면을 3시간 가까이 치고 오르자 록밴드 상단에 다다랐다.

저 아래 캠프는 작은 점처럼 보인다. 에베레스트 세 번,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는 40여차례나 올랐다는 미오리건주 출신 가이드 스캇은 빠른 등반속도에 고무돼 2시간만 더 가면 하이 캠프에 닿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그 때부터가 문제였다. 남극 특유의 매서운 블리자드가 엄습해온 것이다. 불과 몇 분만에 얼굴은 물론 온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띵해지고 구토까지 나오려 한다. 좀 더 두꺼운 옷과 장갑으로 바꿔야 했지만 도대체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다. 피켈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옮겨보지만 등반속도는 이미 현저하게 쳐졌다.

설릉은 끝이 없을 것처럼 이어진다. 언제까지 걸어야 캠프가 나타날까.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 상황. 누가 등반을 가리켜 '고통과 인내의 예술'이라 했던가.

큰 언덕을 넘어서자 마침내 텐트 사이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예상 시간보다 갑절이 지나 캠프지에 도착했지만 바람 부는 벌판에서 우모 원피스를 꺼내 입는 것조차 쉽지 않다. 스캇은 "오늘 최저 온도는 영하 35도, 강풍으로 인한 체감온도는 영하 50~60도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남극의 블리자드가 등반에는 아주 위험한 요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글·사진=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고정 로프가 설치된 50도 경사의 로우 캠프(Low Camp·2,750m)에서 하이 캠프(High Camp·3,700m)간 빙설벽을 오르고 있는 김홍빈 원정대장.

장비와 식량을 눈썰매로 끌며 로우 캠프로 이어지는 설원을 오르고 있는 각 국 원정대원들. 왼쪽 바위 능선 상단의 피라미드봉 너머가 빈슨 매시프 정상이다.